

대동리·大同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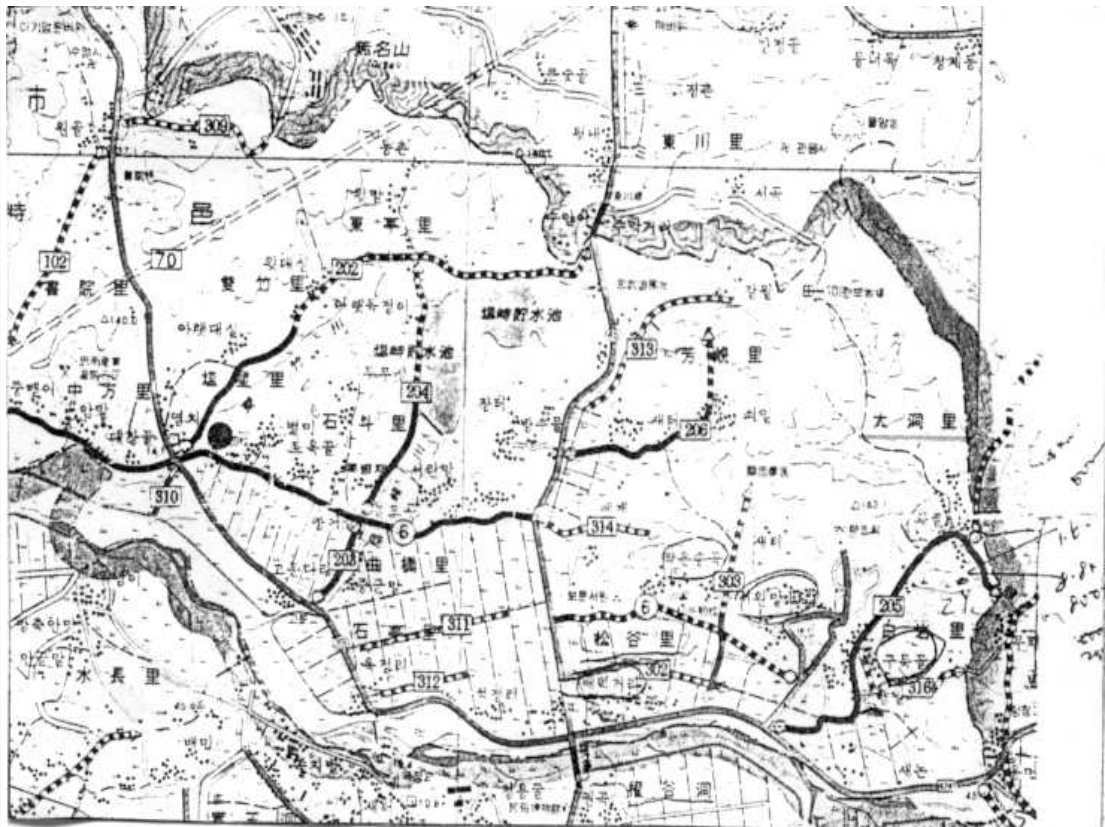
대동리·大同里

<구연자 : 아산시 염치읍 대동리 홍익선씨(71세)>

염치읍의 한마을로 하나의 자연부락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흔히 황골, 황곡으로 불리고 있으나 대부분 사람들은 황골로 부르고 있다. 대동리는 황골, 양지뜸, 옷말, 평촌마을로 이루어졌으며, 마을의 호구수는 총 62호로 주민들의 80%가 농업을 위주로 하고 있으며, 특수작물로 포도재배를 하고 일부 축산업에도 종사하고 있다.

대동리에 홍가신의 영정을 모셔두고 그의 호를 빌어 만전당을 지어 놓고 매년 그의 농은 뜻을 기리고 있으며, 본래 1911년 원남면에 속해 있던 것을 대동, 대서, 대중, 백암 4개리를 병합하여 아산군 남쪽에 있으므로 아남면이라 칭하여 그곳에 속하였다가 1914년 군면 폐합에 따라 대중리, 대서리, 일부를 병합하여 염치읍에 편입되었으며, 이곳이 고려때 아주현의 터였다고 전해 내려 온다.

<대동리 위치도>



⊗ 황골마을 (대동리)

대동리 마을은 황골, 양지뜸, 옷말, 평촌으로 이루어 졌으며, 황골 마을은 황골, 황곡으로도 불리며, 옛날 마을에 대나무숲이 많이 있었다고 하여 대나무 황(篋)자를 써 황골이라 불리게 되었다는 유래와 마을 골짜기가 크므로 한골, 한곡이라 하다 변화하여 황골이라 하였다는 유래도 있었다. 양지뜸 마을은 황골 양지쪽에 있는 마을이며, 옷말 마을은 황골 위쪽에 있는 마을이고, 평촌 마을은 황골 아래 별관에 있는 마을이며, 행정명칭으로는 대동리로 불리고 있고, 이곳은 고려때 아주현의 터였다고도 전해온다.

<조사당시 황골마을 전경>



1) 위 치

황골마을은 현충사 좌측 산너머에 자리하고 있으며, 백암2리 마을을 지나 입구에서 500m 정도 가다보면 망한골 (마공골)이라는 고개가 나오고, 그곳을 넘으면 황골마을이 한눈에 들어온다. 마을 진입로는 백암리 방면뿐만 아니라 탕정면 용두리 방면으로 들어오는 진입로가 나 있다.

2) 현 황

인구는 남자 155명, 여자 147명으로 총 302명이 살고 있으며, 호구수는 62호에 이른다. 주민들 80%가 농업에 종사하고, 15%는 축산업, 5%는 서비스업에 종사하고 있다. 마을의 특수작물로는 포도를 많이 재배하고 있어 매년 큰 소득을 올리고 있다.

- 인구 현황

구 분 마 을 명	계	남	여
황골 마을	302명	155명	147명

- 생 업

구 분 마 을 명	계	농 업	축산업	서비스업
황골 마을	100%	80%	15%	5%

황골마을은 전체 논·밭의 면적은 135ha와 밭은 105ha로 엽티읍에서 가장 많은 농경지를 가지고 있으며, 80%가 농사에 종사하고 있는 만큼 농기계도 다양하고 경운기가 가장 많고 병충해 방제기등을 보유하고 있다. 문화시설로는 마을회관 1개소에 마을 앰프 시설이 비치되어 있다.

- 농경지 현황

구분 마을명	계	논	밭
황골 마을	240ha	135ha	105ha

- 문화시설

구분 마을명	계	마을회관	기타문화시설
황골 마을	1개소	1개소	-

성씨별 분포 현황을 보면 이씨가 21%로 가장 많고 채씨 18%등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으며, 연령별 분포를 보면 20대와 60대가 많고 다른 마을과는 다르게 젊은층들이 많다. 초·중·고등학생들은 대부분 송곡초등학교에 통학을 하고 있고, 중·고등학생들은 온양시내에 있는 학교로 통학을 하고 있다.

- 성씨별 분포 현황

구분 마을명	계	김씨	이씨	홍씨	채씨	윤씨	기타성씨
황골 마을	62호	3호	13호	7호	11호	4호	24호

- 최고령자

황골마을에 최고령자는 맹씨 할머니라고 하는데 올해 93세의 고령이시다.

3) 자연경관

황골 마을 앞에는 태봉산이 있고, 뒤로는 망덕산이 있어 마을을 산이 둘러싸고 있는 형태이며, 마을 한가운데는 냇가가 흐르고 있고, 마을 중앙으로 채동교의 효자문과 산밑으로는 홍가신의 영정을 모신 만전당이 잘 지어져 있다. 마을 주위에는 홍씨와 채씨들의 묘가 마치 공동묘지를 연상하게 할만큼 많이 있으며, 커다란 은행나무들을 쉽게 볼 수 있다. 마을 어귀에는 황골 소류지가 있는데 만수량 55천톤인 소류지로 대동리(황골)에 포함되었으나 얼마전 탕정면으로 구역이 속하게 되었다.

4) 마을 변천과정

본래 아산군 원남면의 지역으로서 황골, 황곡, 또는 대동리라 하였는데, 1911년 원남면에 속해 있던 것을 대동, 대서, 대중, 백암 4개리를 병합하여 아산군 남쪽에 있으므로 아남면이라 칭하여 그곳에 속하였다가 1914년 군면 폐합에 따라 대중리, 대서리 일부를 병합하여 염티읍에 편입되었다.

5) 입향

마을의 형성은 옛날부터 홍·윤·채라 하여 순서대로 성씨들이 들어와 살아왔다고 한다. 그러나 전해오는 말로는 확실하지 않으나 홍씨 이전에도 홍양 신씨가 산 것으로 추정되는데, 그 이유는 마을 주위에 있는 묘중에 홍씨가 들어오기 이전부터 있었던 묘가 바로 홍양 신씨이기 때문에 먼저 이곳에 터를 잡았을 것으로 생각되나 후손이나 확실한 자료가 있지 않아 증명하기가 어렵다. 지금까지도 홍씨, 윤씨, 채씨가 대부분인데 근래 들어 이씨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현재 남양 홍씨가 13대까지 살고 있는 것으로 보아 마을의 형성은 서기 1600년대 약 400년 이전일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홍씨 다음으로 채씨가 10대째 이어오고 있다.

6) 지명

- 황골 : 마을 골짜기가 크므로 한골, 한곡이라 했는데 변하여 황골이라 불러짐.
- 양지뜸 : 황골 양지쪽에 있는 마을
- 웃말 : 황골 위쪽에 마을

- 평촌 : 황골 아래 별관에 있는 마을
- 태봉산 : 황골 앞에 있는 산으로 이 순신 장군의 태를 묻었다는 전설이 있음.
- 덕산 : 황골 뒤에 있는 산
- 고을터 : 평촌에 있는 옛 고을터
- 마구터 : 옥곶자리 부근에 있는 옛마구의 터
- 망한골(마공골, 망구골) : 백암 2리로 넘어가는 곳에 마을이 있었으나 모두 망해서 떠났다는 전설이 있음.
- 절터골 : 망덕산 밑에 있는 절터
- 만전당 : 선조때 만전 홍가신의 집으로 명나라 사신 주지번이 액자를 썼으며 홍가신의 영정을 모신 곳으로 판서 홍가신이 고하여 항시 거처하던 곳으로 이곳에는 시가 있어 당의 옛모습을 알 수 있음.
- 성황당 : 백암 2리로 넘어가는 망한골에 있었으나 현재는 나무만 남아 있음.
- 효자문 : 조선조에 채동교의 효행을 적은 정려 현판임.
- 효자비 : 채관목이라는 사람의 효를 기리기 위해 후손들이 세운비 임.
- 탑골 : 망덕산 밑에 석탑이 있어 불리게 되었음.
- 요왕샘 : 염치읍 대동리와 방현리에 걸쳐 있으며, 이 샘에서 용이 나와 올라갔다는 전설이 있음.
- 옥곶저리 : 평촌 앞에 있는 옥의 터. 현재는 논이 되었음.
- 황골 소류지 : 대동리에 있는 만수량 55천톤인 소류지.

7) 전 설

十 홍가신 선생과 도둑에 얽힌 일화

1571년 이르러 선생이 나이 이른바 "인생 칠십 고래회"라 칭하는 일흔살이 되었다. 그해 가을 들판에서 서서히 곡식이 여물어 가고 산과 들의 모든 만물이 조화를 이루며 달빛에 그 아름다운 광채를 들어내고 있을 때 선생의 집에 복면을 한 사나이가 선생의 집에 담을 뛰어 넘는다. 고령임에도 불구하고 홍선생은 평일과 다름없이 서적을 뒤적이며, 밤늦도록 학문을 통한 덕행을 쌓고 있었다. 홍 선생은 밖에서 요란히 짓어대는 충견의 소리를 듣지 못하는지 계속 책에 열중하시는데 또 다시 한밤을 뒤흔드는 요란한 소리에 괴이히 여기고는 밖의 일에 귀를 기울렸다. 안채로 잠입한 도둑은 급히 장롱을 찾는다, 한참 후 장롱속 깊은 곳에서 홍선생의 부인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패물과 엽전 꾸러미를 꺼낸 사나이는 이마에 흐르는 땀을 훔치고는 입가에 이름 모를 미소를 띄우며 일어선다. 웬지 모르게 행동이 어설피다. 그가 문을 열고 밖으로 나오는데 밖에서 위엄이 서린 수염을 쓰다듬으며 도둑을 지켜보는 홍대감이 있었다. 도둑은 당황하여 허리춤에 숨겨둔 칼을 황급히 빼들었다. 그러나 그 칼은 홍대감을 전혀 두렵게 만들지 못했다. 오히려 위엄이 서린 잔잔한 목소리로 "그 칼을 내려 놓거라." 그러나 당황하여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도둑의 귀에 그 말을 들릴리 만무했다. "대감은 물러나시오." 홍대감은 허허 웃으며, "제법 똑똑한 줄 알았는데.... 가엾은 지고 네가 나를 죽이고 무사하리라고 생각하느냐? 내 집에 무사가 여럿 있다는 건 너도 죽히 알고 있을 터인데 그들이 지금 네 눈에 안 보인다 해서 다 죽은 줄 아느냐?"

사실 홍대감이 여기까지 나온 것은 대감의 심복인 조 단은 말하기를 혼자인 것 같사운데 하는 것이 무척 서툴러 보입니다. 이 말을 들은 홍대감은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나 친히 이곳까지 나오게 된 것이었다. 도둑은 어찌할 줄을 모르더니만 마침내 칼을 집어 던지고 땅에 엎드려 죽을 죄를 지었다며 호느꼈다. 대감은 도둑을 사랑채로 부르시어 그날밤을 재우고는 이 이튿날 도둑을 불러 묻기를 "너는 누구인데 어찌하여 허락도 없이 내 집에 들었느냐?"

"소인은 건너 마을에 사는 김 상목이라 하는 사람이운데 오늘까지 구구히 목숨을 부지하고 있었사운데 어머니가 오래전부터 이름 모를 병에 걸리시어 보름째 일어나지 못하고 있어온데 식량마저 떨어져 풀뿌리로 근근히 목숨을 부지하고 있었사오니 그간 어머니의 병환이 악화되어 어머니의 약값을 마련하기 위해 생각다 못해 오늘과 같은 짓을 하게 되

었습니다."

대감은 어머니의 약값에 보태 쓰도록 하라며 돈을 주어 보냈다. 도둑은 어쩔줄을 모르며 "황송합니다. 나리!"를 연방 외워 대었다.

그후 몇해가 지난 뒤 극도로 몸이 연약해진 대감은 자리에 눕게 되었다. 그런 어느날 대감을 향해 급히 들어서서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바로 2년전 도둑 아닌 도둑이었던 김 상목이었다. 상목은 그동안 대감의 은혜에 보답코저 험준한 산을 헤매며 산삼을 캐기에 여념이 없었는데 오늘 신의 축복이 있음인지 산에서 때아닌 복숭아 향기가 풍겨 그곳을 찾아가 보니 커다란 산삼 한 뿌리가 도도한 그 자태를 드러내고 있었다 한다.

"지난해 대감마님의 하늘 같으신 은혜 입사와 저희 어머님 병환이 완쾌되었사운데 오늘에야 대감님의 은혜에 조금이나마 보답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서 이 산삼을 다려 대감께 드리옵소서." 하며 산삼을 대부인에게 맡기고는 스스럼없이 흡족한 마음으로 돌아섰다. 부인은 영문을 모른채 기이해 하며, "하여튼 고맙네 젊은이."라고 말하고는 얼른 홍대감께 그 사실을 아뢰었다.

홍선생은 몇 해 전에 있었던 일을 생각해 내고는 내심 흡족해 하는 기색이었다. 산삼을 다려 먹은 탓인지 아무리 좋은 약을 써도 낫지 않던 대감님의 병환은 씻은 듯이 나았다.

그 후 어느날 홍대감은 임금님께 상소를 올리기를

"나라 인심이 흥흥하면 모든 일에 지장이 초래하는 법, 올해는 가뭄이 심하여 농사가 흉작일뿐만 아니라 민심이 메말라 가고 있사운데 조세가 너무 무거워 백성들이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사오니 조세를 가볍게 하는 것이 어떠할까 하나이다."

며칠 후 대감이 입궐하였다. 임금이 불러 이르기를

"대감의 상소문을 오래도록 생각해 본 바 대감의 뜻이 옳다고 여기니 대감의 생각대로 조세를 내리라 명하는 바이로다."

"황공합니다. 상감마마."

이렇듯 홍대감은 나라안에서나 밖에서나 청렴 결백하며 모든 일에 백성을 위로하는 그의 깨끗하고 소신있는 생각이 밝혔다.

이해 겨울에 임금님이 홍양에 잠시 행차했을때 주막에 허술한 선비차림을 하고 앉아 있는 임금님을 알 수 없는 고을 사람들은 몇 해 전의 도둑이야기를 하며 홍대감의 인품을 늘어 놓고 있었다. 임금은 궁궐에 돌아와 홍대감에 대해서 알아 본즉 궁궐에서 또한 잘 알려지지 않은 공로가 있음을 알아 내고는 홍선생의 벼슬을 높였다. 선생은 나이 높고 병이 오래되자 기력이 몹시 쇠약해지기 시작했다. 허나 한번도 자세를 흐트러 뜨리지 않고 앓을 때는 반드시 무릎을 단정히 여미고 머리에 빗질하는것과 세수하는 것을 잊지 않았다. 한번도 남에게 기대거나 의지하려는 나태한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十 효자문의 전설

마을 가운데 위치하고 있는 효자문은 조선조 채도교의 효행을 적은 정려 현판으로 채도교의 효행은 이렇게 전해온다.

그가 젊었을 때 일이다. 갑자기 영문 모를 병이 아버지를 병석에 눕게 했다. 좋다는 약이란 약을 다 써 보았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고, 부유했던 가세만 점점 기울었다. 쪼들리는 살림에 추위는 다가오고 아무 대책없이 그냥 하루하루를 보내기만 했다. 그러던 어느날 아버지께서는 대추를 잡숫고 싶다고 하셨다. 그는 암담했다. 이 엄동설한에 어디서 대추를 구하는가. 그의 걱정은 태산 같았다. 어쨌든 어려서부터 효성이 지극한 그는 살을 에이는 듯한 추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돌아 다녔다. 하지만 허사였다. 할 수 없이 체념을 하고 돌아오는 길에 대추나무 밑에 대추 몇 알이 떨어져 있었다. 하늘의 도움인지 어떻게 된 영문인지는 몰라도 대추를 얻었다는 기쁨으로 단숨에 집으로 돌아와 아버지께 드렸다. 그리고 나서 며칠 뒤 또 잉어고기가 잡숫고 싶다고 하셨다. 그는 또 눈보라치는 날씨에 개울에 나갔다. 개울에 무슨 잉어가 있으며, 또한 이 추운 겨울에 잉어가 있을 턱이 없었다. 두 뺨 정도의 얼음을 깨고 낚시를 드리웠다. 반나절을 그렇게 앉아 있었지만, 잉어는 커녕 붕어 한 마리 잡히지 않았다. 그런데 조금 더 있으려니 어디선가 커다란 잉어 한 마리가 뛰어 올랐다. 드디어 잉어를 얻을 수가 있었다. 이렇게 얻은 잉어로 그는 아버지께 맛있게 요리를 해드렸다. 그렇지만, 그의 효성은 아랑곳도 없이 아버지는 세상을 떠나시

고 말했다. 그러나 그의 효성은 널리 소문이 퍼져 조정에서 알게 되었고, 나라에서는 그에게 정문을 하사했다. 그렇게 하여 대동리(황골)마을에 세워지게 된 것이다. 하지만 얼마 전 마을에서는 효자문을 없애 버리고 말했다.

十 요왕샘에 관한 전설

지금의 염티면 대동리와 방현리 사이에 있는 요왕샘에 전설이 전해 오고 있는데 내용은 이러하다.

이 마을은 해마다 풍년이 들고 항상 행복한 마을이었다. 그런데 마을에 돌림병이 돌기 시작하여 사람들이 죽어가기 시작했다. 그러던 어느날 스님이 마을을 지나가며 고자샘 동쪽에 있는 샘물을 떠다 먹으면 될 것이라 하였다. 모든 동네사람들이 그 물을 먹고 병이 나았다. 해마다 동네에서는 그 물을 떠다 먹기 때문에 병이라는 것은 모르고 살았는데 마을에 불행이 닥치기 시작했다. 그 샘이 모두 말라 버려 다시 솟아나지 않았다. 영문을 모르는 동네 사람들은 샘 앞에서 굶도 하고 제도 올렸지만, 소용이 없었다. 그러던 어느날 스님이 지나가면서 샘에는 백년 묵은 이무기가 있어 처녀를 바치면 물이 다시 솟을 것이라 하였다. 그러나 동네 사람들은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도대체 누구를 제물로 바쳐야 할지 몰랐다. 심지어 딸이 있는 집은 딸을 멀리 숨겨 버리기도 하였는데 그 동네에 홀어머니와 살고 있는 한 처녀가 있었다. 그 처녀는 홀어머니를 동네 사람들에게 부탁하고 동네를 위해 제물로 되겠다고 하여 자정이 되어서 처녀를 샘 앞에 놓고 제를 올렸다. 그러자 하늘이 어두워지고 천둥번개가 치더니 샘에서 용 한 마리가 하늘로 올라가는 것이었다. 그렇게 하여 처녀는 다시 홀어머니와 살 수 있게 되었고, 그후로 그 샘을 용왕샘이라 하였는데 세월이 흐르면서 요왕샘으로 바뀌게 되었고, 아직도 이 샘물을 마시면 장수한다는 전설이 전해오고 있다.

十 망구골(망한골, 마공골)에 관한 전설

황골서 백암2리로 넘어가는 고개로 이곳에는 성황당이 있었고, 얼마전까지만해도 성황 나무에는 오색천이 달려 있었다. 이 망구골이란 이름을 불리게 된 전설은 이러하다.

사도세자때 어영대장이었던 구선복이란 사람이 사도세자를 뒤주 안에 넣어 죽이게 되자 아들 정조가 등극하면서 망구골에 집성촌을 이루고 살던 구씨들을 삼대를 멸하여 구씨가 모두 망하여 떠났다고 하여 망구골이라 불리게 되었다.

8) 전통놀이 및 대표적 집단 행사

7월 17일에는 홍가신 탄신제를 지내고 있는데, 원래 4대가 넘으면 지내게 되는 시제를 홍가신은 국가에서 불천지위라하여 탄신제를 비롯 한식때 제사와

양명절에는 사당에서 제사를 지내고 있다. 이밖에 채씨들이 10대째 이어오면서 음력 10월 보름에 시제를 지내고 있고, 망구골에 있던 성황당에서는 마을 사람들이 건강과 마을의 안녕을 기원하는 제사를 지내곤 하였으나 현재는 미신으로 전락하고 나무만 남아 있어 제사도 자연적으로 없어지게 되었다.

9) 특별하게 소개할 만한 인물

대동리에 홍가신 어른과 효자로서 유명한 채동교와 채관묵에 관한 기록은 다음과 같다.

十 홍가신 (洪可臣)

중종 36년(1541년)~광해군 7년(1615년)의 조선조때의 공신으로 호는 만전, 본관은 남양, 온의 아들로서 아직 성동이 되기 전에 성인의 위풍이 있었으며, 사서 삼경과 백가어에 정통 하였고, 필법과 시문에도 능하여 이름이 높았다. 명종 22년 (1567년) 진사에 합격 강릉 참봉이 되었으며, 선조 6년(1537년) 산림조행(山林操行)의 선비로 추천을 받아 예빈시 주부를 거쳐 안산 군수로 나가 선치를 하였으며, 수원부사가 되어 표창을 받았으나 정여립과 교정이 두터웠다는 이유로 파직되었다. 선조 27년 (1594년) 홍주 목사에 보직되어 이 몽학의 반란을 평정하고 청난 공신 1등에 책록 되었으며, 영원군에 봉함 받았다. 광해군 2년 (1610년)에 형조판서에 이르러 치사하고, 아산에 돌아와서 졸하였다.

十 채 동교

그는 1771년 2월 6일에 태어나서 1823년 12월 5일 52세로 세상을 떠날 때까지 효심에 찬 생활로 일관하신 분이다. 순조때 그의 효성에 정문을 하사 받았고, 대동리(황골)에 세워지게 되었다.

十 査 関 牒

정확한 기록은 없으나 효성이 지극하여 그의 효심을 기리는 뜻으로 효자비를 세워 망구골(망한골, 마공골) 올라가는 언덕 왼편으로 세워져 있다.

10) 宗 敎 단 체

마을 망덕산 밑에 절터골이 있는데 옛날 이곳에 절이 있었다는 이야기가 있으며, 현재는 절터만 남아 있다. 또한 기독교인 대광교회가 있는데 신도수는 얼마 되지 않는다.

11) 公 場 現 況

황골 마을에는 공장이 없다.

12) 村 落 의 特 性

황골 마을은 오래된 은행나무들과 홍가신을 모신 사당인 만전당이 있으며, 채동교의 효자문과 채관목의 효자비가 있어 중요한 자료들이 자리하고 있고, 흥·운·채라하여 세 성씨가 주를 이루어 살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산기슭에 위치하여 마을의 산세는 수려할 뿐만 아니라, 아늑해 보이며, 마을 사람들간에 상부상조가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한다. 특히 만전당은 판서 홍가신(判書 洪可臣)이 축조(築造)하여 항시(恒時) 거처(居處)하던 곳이다. 명나라 주지번(朱之蕃)이 만전당이라 이름지어 현판(懸板)을 썼다.